

# 전통 누비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홍 명 화 · 남 윤 자\*

장안대학 의상과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 **A Study on Traditional Quilting.**

- The Focus of Korea and Japan -

Myung-Wha Hong · Yoon-Ja Nam\*

Dept. of clothing design, Jangan College

Dept. of clothing design, Division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ersity\*

### ABSTR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quilt has been used for warmth, supporting materials, protection, religious uses, decoration and giving stability of shapes. Quilt is developed from monk's robe of lags, and the word 'nubi' is originated from 'nabeui' in both Korea and Japan.

Korean quilt was used mainly for warmth: Japanese one was used for warmth and supporting materials. The techniques used for traditional Korean quilt were parallel vertical hand stitches. On the other hand, Japanese traditional quilt uses various motifs of sashiko which is similar to embroidery and named by region.

Korean quilt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by the stitch intervals: Fine quilt(Jan nubi), Medium quilt(Jung nubi) and Wide quilt(Demun nubi). Japanese quilt has been developed in east-north region, and can be grouped into sashiko, kogin and hishizashi by motifs of quilt. Korean quilt costumes are stuffed with cotton between the outer fabrics and linings, and stitched vertically on the fabrics. Main fabrics used were silk and cotton. Japanese quilt costume uses cotton yarns for stitching on flax or cotton fabrics, and main uses of the quilt costumes were working clothes of working classes. Both Korean and Japanese quilt costumes contain of family's health, happiness and longevity. In summary, Korean quilts use two layers of fabrics and stuff them with cotton, and stitch parallel vertical lines to provide warmth. Japanese quilt are sashiko which is stitches of strand in various shapes using cotton yarns, differ by region, and are made for warmth and supporting materials.

Key Word : Quilt(퀼트), Nubi(누비), Sashiko(사시코), Kogin(고깁), Hishizashi(하시자시)

## I. 서론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인간은 의복을 입는 동물이며, 의복은 제2의 피부라고 표현하였다.<sup>1)</sup>

또한 일부 인류학자는 직물을 피륙으로 표현하게 된 것도 피부를 대신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체를 덮는 의복을 제 2의 피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제1의 피부와 다르게 자유롭게 입거나 벗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복은 제1의 피부와는 달리 그 위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 각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만이 착용하는 의복은 물질로써 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추상개념을 사실화해 낸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 인정된다.<sup>2)</sup>

복식문화에 내재된 표상적 가치는 섬유류 등과 함께 공예품으로서 장식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음을 검토해 볼 때, 인류의 상징문화의 체계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적용되어 온 추상예술의 기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복식문화에는 이와 같은 의미의 상징표현이 이미 적용되어 왔다. 직물은 생활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실용품이며,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간생활과 미에 대한 의식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좋은 재료일 뿐만 아니라 복식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알 수 있다.<sup>3)</sup> 인류가 직물을 사용하여 의복으로 사용한 이래로 다양한 형태의 섬유공예가 발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누비는 직물이 흔하지 않은 시기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으로 오

늘날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이용된다.

최근의 복식뿐만 아니라 여러 패션상품에서도 북고적인 민속풍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행경향에 맞게 수공예적 기법이 복식에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누비 복식을 통해 두 나라의 복식문화를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누비의 기원 및 특성, 누비용도를 고찰한다.
2. 복식에 표현된 전통 누비종류를 살펴본다.
3. 한국과 일본의 누비복식을 비교하여 복식문화를 이해한다.
4. 전통 누비기법에 대한 제인식을 통해 누비 기법을 계승·발전시켜 누비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복식연구에 있어 유물은 가장 중요한 고찰대상이나, 그러나 복식은 자료의 보관상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자연 소실되고, 광선에 의한 노출이나 온도·습도에 의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손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자료에 중점을 두고 유물 도록의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누비의 기원과 그 변천은 고대에서 근대까지 살펴

1) 朝岡謙二, 布とその技をめぐる過去と現在, 布のちから 布のわざ, 國立歴史民俗博物館, 1998, p.6.

2) 신영선, 문화인류학에서 찾아본 복식의 정신문화, 교문사, 1998, p.115.

3) 李和峽, 일본직물에 관한 고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2, p.1.

보았으며, 누비복식의 고찰 대상은 한국누비의 유물 자료는 朝鮮時代(1392년~1910년) 이후부터, 일본누비인 사시꼬(刺し子)는 江戸時代(1615년~1868년)에서 明治時代(1868년~1912년) 이후인 16C 부터 20C 초반까지의 복식자료를 사용하였다. 일본 누비 및 누비복식에 대한 용어의 표기는 원음을 발음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였다.

## II. 누비의 기원과 용도

### 1. 누비의 어원

누비란 한자어로는 樓緋로 표기하며, '직물의 안팎사이에 솜을 두고 누비는 바느질 기법'<sup>4)</sup>이다. 누비는 雅言覓非<sup>5)</sup>에 의하면 衲衣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승려들의 해진 의복을 기운데서 비롯되었다.<sup>6)</sup>

누비의 어원은 '승복 즉, 衲衣로서 승려들의 어깨에 걸치는 검은색 법의인데, 衲은 기우다는 뜻으로 세상사람들이 내버린 낡은 형겼을 모아 기워 만든 옷을 의미한다.'<sup>7)8)</sup>

승려들이 착용하는 袈裟는 원래는 탐욕심을 일으키지 않는 무가치한 것을 몸에 붙인다는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버리는 허름한 형겼을 꿰매어 합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衲衣 혹은 糞掃衣<sup>9)</sup>라고 하였다.<sup>10)</sup>

따라서 누비는 본래 衲衣에 어원을 둔 용어로서 승복에 기원을 두었으나 차차 승복의 가사와 같이

직물의 안팎사이에 솜을 두고 누비는 봉제기법의 의미한다.

또한 누비는 영어로 퀴트(quilt)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佛語의 古語인 '쿠알트(coilte)' 또는 '퀄트(cuilte)'로 부터 영어로 옮겨왔으며, 13세기 이후부터 퀴트(quilt)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sup>11)</sup> 퀴팅은 걸감과 안감사이에 솜, 모사 등을 넣고 문양을 두드러지게 수놓은 것으로, 서양 수예 기법의 하나이다.

일본의 사시꼬(刺し子)는 의복이나 행주, 걸레 등의 보강, 보온을 겸해서 장식적으로 꿰매는 수예기법으로, 수평·수직·사선 등을 조합해서 다양한 문양으로 구성한 것이다.<sup>12)</sup> 사시꼬는 일본누비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東北地方의 누비를 의미하는데 일본의 누비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이며, 누비에 대한 명칭 또한 달리 지칭되고 있다.

### 2. 누비의 기원

누비의 기원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고대 이집트나 동양에서 전해오고 있었으며, 고대 이집트 제1왕조의 왕 대리석상에 새겨진 망토에 퀴팅문양이 조각되어, 그 時代에 이미 퀴팅기법이 발전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누비는 '직물의 보강과 보온을 위한 기법으로 몽고의 고비사막 일대에서 시작되어 기원전 200년경 중국과 티벳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기록<sup>14)</sup>을 보면

4) 金英淑. 韓國服飾史 辭典, 民文庫, 1988, p.131.

5) 雅言覓非: 조선時代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지은 어원 연구서, 순조19년(1819)에 간행, 3권 1책.

6)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p.113.

7) 崔仁建. 손누비에 관한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8, p.6.

8)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卷十, 昭和 60년, p.186.

9) 糞掃衣: 사람이 버리고 들보지 않는 포.

10) 玉田眞紀. キルティングとパッチワークの文化”, 共立女子大學所藏アメリカン・アンティークキルトコレクション, 日本ヴォーグ社, 1992, p.155.

11) 吳根美. 現代퀴트(Quilt)에 관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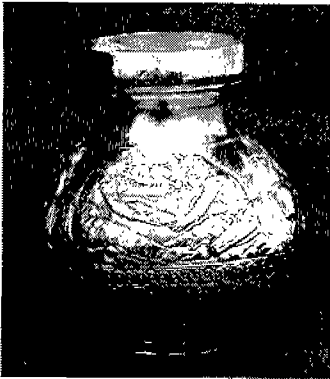
12) 大沼 淳. 服飾辭典, 東京:文化出版局, 昭和57년, p.313.

13) Averil Colby. Quilting, New York: Scribner, 1971, 玉田眞紀, 전게서, 재인용, p.153.

14) 東亞出版社編輯部.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7卷, 東亞出版社, 1984, p.626.

누비는 동양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퀴팅 유물은 시베리아의 깔개로서, 묘의 상(床)에 깔려 있다. 대략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에 만들어진 이 깔개는 나무나 동물문양 및 격자문양이 새겨진 바탕 위에 큰 右回와 左回의 渦卷文樣과 그것을 메우는 작은 渦卷文樣이 중앙에 누벼져 있다.<sup>15)</sup>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 중에서 누비복식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스키타이 유물인 금항아리에 부조된 것이다. 이 항아리는 기원전 4세기 때의 유물인 스키타이戰士文 항아리로 그리스와 한古墳에서 출토된 것이며, 조각된 내용은 스키타이 신화가 새겨진 의식용 항아리이다.<sup>16)</sup>

<圖 1-1>은 다리에 붕대를 감아 주는 장면으로 항아리 왼쪽에 있는 전사의 바지에서 가로 선으로 누벼진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전사의 바지에서는 세로 선으로 누벼진 형태를 볼 수 있다. <圖 1-2>에서는 두 전사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으로 상의에 세로로 누벼진 선을 자세히 볼 수 있으며,



<圖 1-1> 전사문 금제항아리



<圖 1-2> 전사문 금제 항아리 부분  
(출처: 東京民俗博物館 主催, シルクロードの遺宝 - 古代・中世の東西文化交流 -)

바지에서도 세로로 누빈 선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누비 양식이 세로와 가로로 누벼져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스키타이 양식의 누비에서 볼 수 있는 세로로 된 누비는 한국의 누비형태와 같다.

이 누비 양식은 한국 복식문화의 원류를 북방문화인 스키타이계 복식문화라고 주장하는 연구<sup>17)</sup>와 연관되어진 자료로 볼 수 있다.

침대커버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139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Victoria & Albert Museum에 보존되어 있는 시시리안 퀴트이다. 여기에는 Tristram<sup>18)</sup>이라는 기사의 설화가 그려져 있으며, 그림과 시시리어로 슬픈사랑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여,<sup>19)</sup> 시시리아 방언으로 12세기 서정시를 나타내고 있다.<sup>20)</sup>

1924년 무덤에서 발견된 몽골리안 퀴트카펫은 기원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레닌그라드에 있는 USSR 학술과학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이 카펫은 장례식을 위해 만들어졌거나 족장의 텐트 속의 마루깔개로 보인다.<sup>21)</sup>

15) 玉田眞紀. 전계서, p.153.

16) 東京國立博物館. シルクロードの遺宝-古代・中世の東西文化交流圖録, 東京, 1985, No.24 설명.

17) 金文子. 韓國服飾文化의 源流, 民族文化社, 1994, p.157.

18) Tristram: 아서왕의 원탁기사 중 한사람.

19) 鷺沢玲子. トウアントキルト, 日本 ヴォーグ社, 1996, p.6.

20) Kathryn Berenson. Quilts of Provence The Art and Craft of French Quiltmaking, London: Thames and Hudson, 1996, p.31.

21) The Association with the Museum of American Folk Art. The Quilt Encyclopedia Illustrated, NewYork: The Times Mirror Company, 1991, p.6.

### 3. 누비의 용도

누비에 대한 성격으로 박성실<sup>22)</sup>은 방한용, 종교용, 호신용으로 분류하였고, 鮮于銀京<sup>23)</sup>은 앞의 분류에 실용성과 장식성을 추가하여 누비의 성격을 5가지로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누비의 용도로써 방한용, 보강용, 종교용, 호신용, 장식용, 형태안정용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 1) 방한용

누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면, 더운지방에서는 누비의 유물을 찾을 수 없으나 추운 지방에서는 많은 유물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누비는 추운 날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누비는 두겹의 직물 사이를 솜을 넣어 바느질 한 상태를 말하는데 누비의 역할은 인체에 추운 기운을 막아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의 역할이 가장 크다.

#### 2) 보강용

직물이 흔하지 않던 시대에는 직물을 구하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헌것이라도 잘 아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직물을 오래 사용하여 떨어져 나간 곳을 헌 옷감에서 조각을 잘라 내어 꿰매어 사용하였는데 이때 누비는 방법에 의하여 직물을 보강하였다. 직물의 보강 방법으로 누비 기법은 절대적인 보강 방법이었다.

#### 3) 종교용

누비의 어원이 승복, 즉 衲衣의 국속어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누비의 기원이 세상사람들이 내버린 낡은 형겍을 모아 기워 만든 옷을 의미하므로 종교

적인 의미의 누비기법이 사용 되었을 것이다.

불교의 교리가 마음의 사욕을 버리고 해설의 경지에 나아감이 목적이므로 승려의 법의 재료는 소극적으로는 수도에 장애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수도에 증익이 되도록 좋은 재료의 사용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었다.

#### 4) 호신용

군사들의 무기의 발달과 함께 호신용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추위와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옷의 착용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부족국가 시대에서 부터 딱딱한 갑옷안에 입을 수 있는 군복이 개발되고, 병사들에게는 무거운 갑옷 보다는 따뜻하고 폭신하며 비를 막고 탄환을 막아주는 솜옷이 제일 이어서 군복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첩리가 아복으로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누빈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누비의 특성상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이었다.<sup>24)</sup>

#### 5) 장식용

누비의 형태 및 간격, 누비실의 변화, 누비땀의 간격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솜을 넣었을때의 모양과 솜을 넣지 않았을때의 모양은 다른 느낌을 주어 장식의 효과를 달리 나타내 준다. 누비의 간격이 넓으면 푸근한 느낌을 주고, 누비의 간격이 좁으면 딱딱한 느낌을 준다.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누빈 형태는 장식의 효과와 함께 견고한 느낌을 주어 유도복이나 검도복에 이 누비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 6) 형태안정용

누비는 두장의 옷감사이에 솜을 넣어서 바느질을

22) 朴聖實. 누비 小考, 服飾, 第十四號, 韓國服飾學會, 1990, pp.42~47.

23) 鮮于銀京. 朝鮮時代 縵緋服飾에 關한 研究-出 1:服飾을 中心으로, 明知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100~102.

24) 鮮于銀京. 상거서, pp.100~101.

이용하여 붙인 것으로 세탁시 안에 있는 솜이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흠질로써 촘촘히 하였기 때문에 물 세탁시에도 용이하게 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방어용인 포개의 용도는 쇠퇴했지만 동의나 바지, 패치코트, 배드카바, 여행용 가방 등 의복과 침구류 등의 다양한 용도에 누비가 널리 사용되었다. 누비로 된 복식은 형태유지에 도움을 주었는데 그 좋은 예로 속옷으로써 사용하면 걸음을 부풀리는 실루엣을 만들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었다.<sup>25)</sup>

### Ⅲ. 한국의 누비

복식은 그 민족의 생태학적 지리적인 위치 기후, 풍토, 종교, 경제, 정치사회 문화적인 여러 생활 환경과 생산 수단이 낳은 산물이며 그 민족의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상호 이래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4계절의 뚜렷한 기후에 의하여 한국의 겨울은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복식의 형태가 변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 중에서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봉제기법이 사용되었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누비이다.

누비의 유물은 朝鮮時代(1392~1910년) 이후 것으로 이는 한국에 목화가 도입되어 피복재료로써 일반인들에게도 무명과 목화솜이 널리 사용된 시기가 바로 조선時代이었기 때문이다. 목화전래 이전에도 면포는 중국과의 교역에 의해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상류층에서나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목화는 문익점에 의해 전래된 이래로 우리 생활문화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朝鮮時代 전 기간을 통해서 사용되었다. 한국의 목화재배가 성공한 것은 공

민왕 14년(1365) 부터이며, 공양왕 3년(1391)에 정부는 백성에게 혼수품으로 값비싼 비단 대신 무명으로 하라는 령을 내렸고(〈高麗史節要〉14, 공양왕 3년3월), 36년 뒤인 朝鮮 태종 1년(1401) 3월의 기록에는 백성 상하가 다 무명을 입게 될 만큼 면직업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여 갔던 것이다(〈太宗實錄〉1, 1년3월 辛巳).<sup>26)</sup>

또한 한국은 중국대륙과의 오랜 문물의 전래를 통하여 좋은 직물이 많이 들어 왔는데 이는 한국의 견직물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국민들의 견직물을 이용한 복식착용을 활발히 해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의 누비복식 유물은 두겹의 면직물과 견직물 사이에 솜을 넣어서 누빈 유물이 많다.

#### 1. 한국 누비의 정의

한국 누비는 “피륙의 안팎사이를 솜을 두고 줄이 죽죽지게 바느질을 촘촘히 하는 흠질로써, 누비로 쓰는 것은 과음이다.”<sup>27)</sup>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의 누비는 누빈 모양과 상태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누비는 2장의 피륙사이에 솜이나 다른 물질을 넣어 누빈 것으로 흠질이라는 바느질법을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누비는 한국에서는 복식 명칭앞에 누비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였다. 예를들면 누비저고리, 누비바지, 누비치마, 누비베자, 누비포, 누비버선, 누비치네 등 누비가 사용된 용도는 다양하다.

한국 전통누비의 특징은 대부분 평행수직선으로 줄누비의 형태를 이루며 줄누비는 누비의 기본 형태로 복식류에 주로 사용되었고, 장식적인 문양이 들어간 누비는 생활용품에 사용하였다.

25) The Association with the Museum of American Fork Art, 전거서, p.44.

26) 金成俊. 文益漸과 木棉씨 傳播의 歷史의 背景, 문익점과 무명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1. p.90.

27) 李熙昇. 民衆國語辭典, 民衆書林, 1987. p.411.

## 2. 한국누비의 역사

한국에서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누비는 부족국가 동예의 여인들이 입었던 존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 존의는 비단으로 만들어 입었다고는 하나 누비의 형태가 어떠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sup>28)</sup>

동예는 그후 고구려에 통합되면서 그 문화를 비롯하여 누비의 전통이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 선조들은 추운 겨울에 보온을 위한 의복과 침구류에 주로 누비가 이용되어져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누비가 일상생활에 도입된 시기는 꽤 오래되었다고 추측 할 수 있다. 그림으로 나타난 누비옷은 고구려 고분 벽화 감신총 전실 서벽감내 좌측에 그려진 인물의 상의로서 누비갑주가 있다.<sup>29)</sup> 이 누비 갑주는 전체를 사선과 횡선으로 누빈 상태를 묘사하였기 때문에 문양상으로는 능형으로 보이며, 또한 매우 폭신한 감을 자아내게 하고 더욱 의령의 목둘레는 위는 높이고 앞은 낮추어 여미게 하였다.

또 삼국유사에는 응답사가 납의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 승복이 신라, 고려의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sup>30)</sup> 또한 고려時代 계림지에는 한국 사람들이 납의 입기를 즐기는데 이는 처음 승가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고려인들이 입었던 납의는 승가의 기운 형태가 아닌 누빈 형태의 것으로 추측된다.<sup>31)</sup>

한국에서 누비옷의 유물이 남아 전해지는 것은

조선時代 초기로, 조선조 이전의 누비유물은 발견된 것이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누비에 관한 기록이 상대의 문헌에도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누비의 역사는 상대사회에서 부터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 3. 한국누비의 종류 및 기법

누비의 종류를 궁중발기<sup>32)</sup>에는 오목누비, 잔누비, 납작누비, 증누비, 세누비로 구분하고 있고, 한국의 누비장인 김해자씨는 누비의 기법에 따라 볼록누비, 오목누비, 납작누비로 나눈다.<sup>33)</sup>

남아있는 유물을 통해 관찰해 보면 누비의 종류는 누비간격에 따라 잔누비(세누비), 증누비, 드문누비로 나누고, 누빈형태에 따라 오목누비와 납작누비로 나누며, 봉제방법에 따라 홈질누비와 박음질누비로, 솜의 첨가 유무로 솜누비와 겹누비로 나눌 수 있다.<sup>34)</sup>

雅言覺非에 細縷飛는 잔누비, 細納이라고 하고 박아짓는 奮紵은 實納이라 하고 있다.<sup>35)</sup>

누비간격에 따른 분류에서 증누비를 중심으로 얇고 누비폭이 좁은 것을 잔누비라 하며, 누비폭이 넓은 것을 드문누비라 한다.

잔누비는 세목누비 또는 세누비라고도 하며, 이는 솜을 얇게 두어 촘촘히 누빈 것으로 상류층의 저고리나 속옷 등에 많이 이용되었다. 이것은 좁고 촘촘히 누빔으로서, 한 겹의 두터운 옷감의 효과를 나타낸다. 누비폭이 보통 0.4Cm에서 0.9Cm까지이다.<sup>36)</sup>

28) 朴聖賢. 전계서, p.42.

2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韓國의 甲冑, 세신문화사, p.15.

30) 조한열. 웰트 -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6, p.17.

31) 朴聖賢. 상계서.

32) 궁중발기:국가의 잔치, 제사, 의식등 징총관계의 큰 행사때와 탄일, 명절, 왕자의 경사등이있을 때 소요되는 물품의 목록과 수요를 적어올린 일종의 견적서 의복을 적은 의대발기가있다.

33)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전통 손누비 옷 초대전 도록, 1994.

34) 朴聖賢. 상계서, p.47.

35) 김충권 역. 雅言覺非, 券之二.

36) 김윤주. 전통누비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p.11.

중누비는 중간굵기의 누비로 1~5cm 간격으로 누빈다. 주로 속옷종류인 단속곳 종류에 많이 사용한다.

드문누비는 누빈상태가 간격이 넓어서 드문드문 흠질한다. 솜저고리에서 사용한다.

누빈형태에 따라서 불룩누비, 오목누비, 납작누비로 나눈다.

불룩누비는 솜을 넣어서 누빈 일반적인 누비이다. 오목누비는 솜을 넣지 않고 천과 천을 맞붙여서 누빈 것으로 안쪽에서 누빈선에 풀을 먹여서 다림질로 꺾어 오목한 효과를 낸 것이다. 납작누비는 솜을 넣지 않고 두겹의 직물만 누빈 것으로 불룩감이 없는 누비방법이다.

누비는 봉제방법에 따라서 흠질과 박음질누비가 있다. 한국누비는 대부분 흠질누비로 되어 있으나 박음질누비도 간혹 보인다. 흠질누비는 흠질로 바늘땀이 일정하며, 박음질누비는 튼튼하게 박아야 되는 곳에 주로 사용한다.

누비는 솜의 첨가 여부에 의하여 솜누비, 겹누비로 나뉜다. 솜누비는 두겹의 직물사이에 솜을 넣어서 누비는 방법이다. 겹누비는 직물 두겹 사이에 솜을 넣지 않고 직물만 누빈방법이다. 이외에도 솜대신에 창호지를 넣어서 누비는 방법도 있다.

누비의 형태는 대부분 평행 수직선으로 줄누비의 형태를 이루며, 朝鮮朝 후기에 와서야 장식적인 효과를 높인 대각선 형태의 누비가 나타난다.<sup>37)</sup>

#### 4. 한국 누비복식의 종류

한국 누비 복식의 종류는 다양한 복식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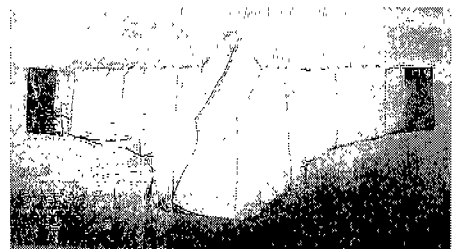
누비복식의 유물은 주로 출토복식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출토복식의 종류는 저고리와 포류와 남자의 바지, 여자의 겹옷으로 치마와 속옷인 속곳류가 있으며 그밖에 배자, 반비, 답호, 버선, 토시등과 생활용품으로 이불, 보자기, 장방등이 있다.

누비저고리는 남녀 모두 착용하였다. 누비저고리중 고종(1864~1907年)이 착용하였던 누비저고리는 자색비단에 흰 안을 넣고 솜을 놓아 2mm 간격으로 정교하게 누빈 저고리로서 중요 민속자료 제210호이며 누비복식중 궁중누비를 알 수 있는 남자 누비저고리이다.<sup>38)</sup> 여자 누비저고리의 유물 중에서 출토복식이 아닌 저고리로 이단하부인의 저고리는 중요민속문화재 제4호로 1680년대의 것으로 명주에 얇은 무명을 받치고 솜을 놓아 누빈 당코깃 저고리이다.<sup>39)</sup>

덕온 공주의 누비 삼회장 저고리는 朝鮮朝23대 순조의 셋째딸 덕온공주(A.D.1822~1844)의 노랑색 비단에 자주색 회장에 흰 안을 넣고 그 사이에 솜을 넣어 잘게 누빈 저고리인데 중요 민속자료 제211호이다.<sup>40)</sup>

누비저고리 중에서 가장 넓은 누비는 현재 충북 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박장군 출토복식(圖 2)으로 중요민속자료 제117호이며, 임란직후로 추정된다. 이 누비저고리는 소색명주 누비 당코깃 저고리로 소매 끝등이 다른색으로 달려 있다.



<圖 2> 누비 당코깃 저고리  
(출처:우리나라 16·17세기출토복식 p.59)

37) 전계서.

38) 石宙善. 衣(民俗學 資料 第 3 輯),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1996, p.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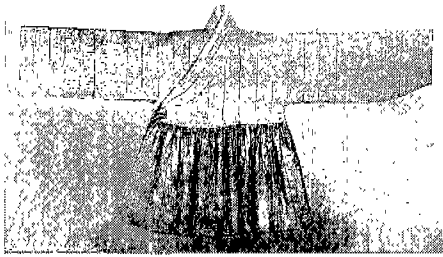
39) 石宙善. 전계서, p.167.

40) 상계서.



철릭은 고려말부터 조선時代 전반에 걸쳐 여러 계층의 戎服, 便服, 常服, 中衣 등으로 착용되었던 袍類의 하나로 상하연철(上下連綴)식의 구조에 허리에 주름을 잡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철릭의 표기는 첩리, 철릭, 천익, 철릭으로 불리어지며 이 중에서 조선왕조 전반을 통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표기는 철릭이었다.<sup>41)</sup> 철릭은 조선 중기까지는 일상복으로, 조선 후기에는 군복(용복)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무당복의 일부로써 時代에 따라 그 기능의 변화가 다양한 의복이다. 이 의복은 다른 평민의 의복과는 달리 상·하가 절개된 것으로 상의하상(上衣下裳)의 구조, 즉 상의의 저고리와 하의의 치마가 연결·구성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연결선은 時代에 따라 아래(下)에서 위(上)로 이동하여 時代를 추정하는 기준이 되는 구성상의 특징을 지닌다.<sup>42)</sup>

〈圖 3〉은 순천 김씨 출토복식으로 1530년에서 임란이전의 복식으로 명주에 솜을 넣어 넓게 누빈 형태의 철릭이며, 중요민속자료 109호이다.



〈圖 3〉 누비 철릭(출처:우리나라 16·17세기출토복식 p.22)

누비장의를 남·녀의 일상적인 포로 착용되지만, 조선후기에는 여자의 장옷으로 전개되었다. 장의는 조선 말기에 부녀자들의 두루마기형 쓰개옷에 사용된 것이 일반적이며 문자 그대로 긴 옷이라는 뜻이

다.<sup>43)</sup> 누비지 않은 장의와는 전체적으로 다른 느낌을 준다.

김위 출토복식 중 누비장의는 중요민속자료 제 118호인 누비장의와 경기도 박물관에 있는 여흥민씨 유물 장의는 갈색 명주로 되어 있다. 여흥민씨 장의는 유물도록에는 두루마기로 되어 있으나 형태상으로 보아 장의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창의는 창옷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 종류에 있어서 형태상 대창의, 소창의, 학창의로 나누어진다. 누비복식으로는 대창의와 소창의의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조선時代に 조선 상식문답에 처음 나온다. 창의는 출토복식이 주로 소색인 것으로 보아 받침옷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첩리대용으로 착용한 옷으로 보기도 한다.<sup>44)</sup> 단령이나 답호의 받침옷이며 한삼위에 착용한 옷이다. 창의는 남녀가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그 누비 재질은 명주나 무명이다.

누비액주음포 유물로 중요 민속자료 114호인 1500년대 광주이씨의 액주음포는 폭면에 얇게 솜을 두고 누빈 포로써 양옆에 주름이 잡혀 있으며, 박음질로 누비 간격은 0.3cm이다.<sup>45)</sup>

누비치마는 유물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굴된 것은 1989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朝鮮 중기(효종 7년 : 1656年)에 71세로 수를 다한 여흥 민씨 부인의 치마로서 현존하는 출토복식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圖 4〉는 17세기 치마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치마 절감은 청색으로 보이거나 탈색되어 황색을 나타내고, 안감은 진한 소색의 명주로 되었으며 누벼져 있다.<sup>46)</sup> 치마길이는 93cm이고,

41) 백영자. 한국의 복식, 1993년, pp.193~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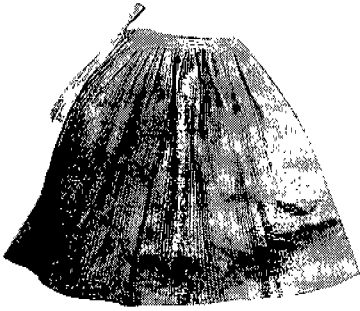
42) 상계서. P.15

43)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86, pp.346~347.

44) 장인우. 전계서, p.81.

45) 朴聖賞. 전계서, p.57.

46)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도록, 고려서적(주), 1996, p.69.



<圖 4> 누비치마(출처:경기도박물관도록 p.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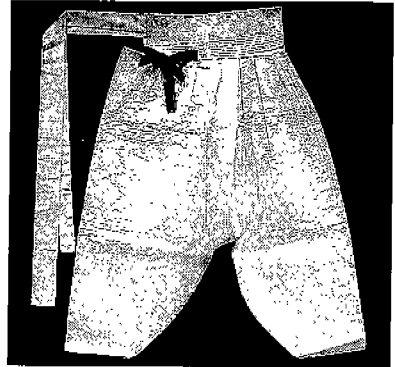
치마폭은 314cm이며 누비간격이 1.2cm이다.<sup>47)</sup>

바지는 인체의 하부에 착용하는 의복으로 한국 전통복식 중에서 기본복에 속한다. 남자는 겉에 입는 옷으로서, 여자는 치마 속에 입는 속옷으로 착용하였다. 남자 바지는 조선時代 전시기를 통해 거의 형태상의 변화가 없다. 17C~18C에 착용된 출토복식 바지에는 누비바지가 많다.<sup>48)</sup> 김덕원공(1634~1704년)이 착용했던 바지는 현대의 바지와 형태가 유사하며, 3.5cm간격으로 곱게 누볐다. 여자 속옷으로는 순천김씨의 명주누비 단속곳으로 어깨끈이 있으며 옆으로 매어서 입는 속바지이다.

<圖 5>는 1880년대의 누비바지로 누비 간격을 달리해서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낸 속바지로서 허리끈 옆에 紅色紗로 장식끈을 덧달아 예술품으로 인정 받을 만한 유물이다. 박음질로 누벼져 있으며 누비 간격이 허리위와 허리아래, 바지중간과 바지아래가 다르게 누벼져 있다.<sup>49)</sup>

배자는 팔이 없고 양 옆이 트였으며 길이가 짧다.<sup>50)</sup> 배자는 합입으로 등근깃에 등정이 달려 쌍질의 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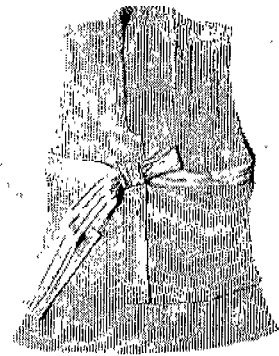
누비배자 유물중에서 홍진중(1647~1702년) 묘의



<圖 5> 누비속바지(출처:문익점과무명문화, p.56)

출토품인 배자는 앞이 길고 뒤가 짧다. 안과 겉이 명주이고 1cm 간격으로 누볐다. 일반적인 배자의 형태는 앞이 짧고 뒤가 긴 길이로 되어 있다. 목둘레는 등근형이고, 겨드랑이 아래의 양 옆에는 2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목둘레와 옷단 주위에는 천으로 감쌌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이다.<sup>51)</sup>

<圖 6>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누비배자이다.



<圖 6> 누비배자(출처:한국의미, p.19)

누비반비 유물은 소매가 없거나 짧은 옷의 일반적인 명칭이고, 신라時代 이후 부녀자의 표의로 착

47) 裴尙慶. 東來鄭氏 興谷公墓出土遺衣 保存處理報告書-鄭夫人驪興閔氏(東來鄭廣敬의 配位)遺衣에 관한 保存處理 및 服飾史的 考察-, 京畿道博物館, 1992, P.76.

48) 高福男. 전계서, p.140.

49) 朴聖賢. 전계서, p.55.

50) 高福男. 상계서,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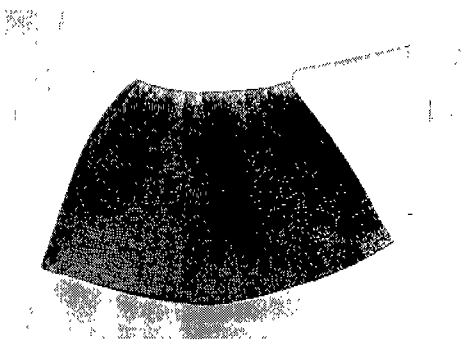
51) 국립민속박물관, 광복 50주년기념 한국복식 2천년, 신유문화사, 1995, p.117..

용되었다.<sup>52)</sup> 朝鮮時代 중기 은진 송씨(1700년대)묘에서 여자 저고리와 함께 출토된 출토품으로 깃은 없고 목둘레는 U자형이며, 소매가 4~5cm 가 달려 있고 앞에서 작은 고름으로 여몄으며 솜을 두지 않고 제감으로 2cm 간격으로 곱게 누볐다. 국립민속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53)</sup>

누비담호는 반소매형 남자포의 일종으로 朝鮮時代に 관복의 밑받침 옷으로 입었다. 朝鮮時代 후기에 가면 깃이 없어지고 함임으로 앞섶에서 단추나 고름 또는 매듭단추로 여미게 되며 두루마기 위에 입는 옷으로 변하게 된다.<sup>54)</sup>

어린이 복식에서 누비 복식유물은 이방자 여사가 동경 국립박물관에 기증했던 영친왕가의 복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누비복식은 손누비가 아니고 기계로 만든 누비이다. 어린이 누비복식을 알 수 있는 이 유물은 현재에는 덕수궁 궁중 유물 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다. 누비저고리, 누비풍차바지, 누비버선, 누비쳐네등이 있으며, 궁중 어린이 누비복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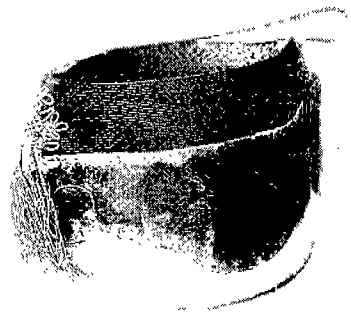
두렁치마는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갓난 아기에게 보온을 위하여 입히는데 두렁이라고도 하며, 겹 혹은 솜을 넣어 누볐다. <圖 7>은 강화지방의 것으로 짙은 감색 무명에 솜을 두고 누빈 것이다. 석주선



<圖 7> 누비두렁치마(출처:문익점과 무명문화,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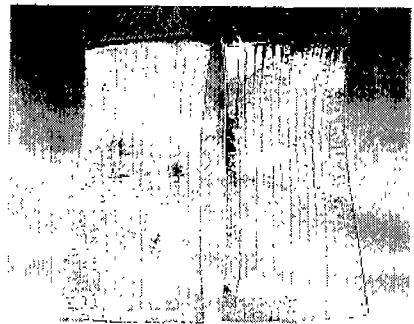
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누비아얌<圖 8>은 검정색으로 정수리 부분은 터져 있고 상단부분은 잔누비로 누벼져 있으며 아래 부분은 털을 달아서 장식하고 술과 끈으로 장식하였다. 아얌은 부녀자의 방한모로 젊은층에서 많이 애용하였다.<sup>55)</sup>



<圖 8> 누비아얌(출처:續 韓國服飾史, p.146)

누비토시<圖 9>는 겨울용 방한구의 일종으로 비단 무명 등을 겹으로 만들고, 누비거나 안에 털을 대었다.



<圖 9> 누비토시(출처:문익점과 무명문화, 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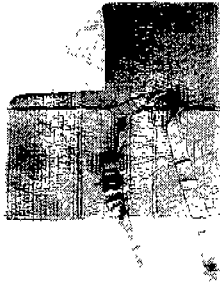
생활용품으로는 침구류, 보자기, 장방, 주머니 등이 있다. <圖 10>은 궁중에서 사용하던 누비보자기이다.

52) 高福男. 상계서, p.379

53) 국립민속박물관. 전계서, p.105.

54) 국립민속박물관. 상계서, p.116.

55) 石南善. 續 韓國服飾史, 石宙善民俗博物館, 1982, p.146



<圖 10> 누비보자기(출처:朝鮮時代宮中服飾, p.193)

## 5. 한국누비에 담긴 풍습

한국의 누비 복식에 담긴 한국민족의 풍습을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알 수가 있다. 어린이는 어린이가 태어난지 백일이 되는 날에 누비로 된 백일복을 입히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어린이가 누빈 실의 길이 만큼 오래오래 살라는 기원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또한 누비 속바지에 담긴 풍습으로 한국 부녀자들은 최소한 일생에 두벌의 누비바지를 짓는 것이 습속화 되어 있다고 한다. 시집갈 때 시어머니의 누비바지 한벌을 지어가고 시어머니가 환갑을 맞이하면 다시 누비바지를 한벌 지어 바치는 것이 부도였다고 한다. 여기에는 시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호남지방에서는 며느리가 지어주는 누비바지를 명바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누비바지가 장수를 상징하는 이유가 된 것은 누비는 울이 장수를 상징하는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sup>57)</sup> 이렇듯 누비복식에는 사람의 명을 길게 해달라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풍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비는 천의 표면을 흠질과 함께 붙결치는 것처럼 늘려 놓은 것 같은 누

비실의 연결은 바늘땀이 길고, 영원하므로 장수를 상징하고 풍부한 수확을 기원하는 밭이랑을 나타내는 누비끝은 또한 빗줄기에도 비유되어 수확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누비실이 길게 뻗어 나간 직선은 언제나 한번은 성공한다는 기복인 의미를 담고 있다”.<sup>57)</sup>고 한다.

## IV. 일본의 누비

일본 누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물은 목면으로써 목면이 일본에 전해진 시기는 1556년으로 한국 보다는 늦게 전래되었다.

의복재료의 부족은 현 옷감의 재활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현옷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비기법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전통 누비인 사시꼬가 추운 지방인 東北地方에서 발달한 것은 추위를 막기 위하여 많은 의복재료가 필요했으나 의복재료의 결핍으로 현옷을 이용하여 여러 겹을 포개거나 현옷에서 실을 뽑아 내어 직물을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 1. 일본누비의 정의

일본의 누비는 사시한 것을 말하는데 사시란 현 것의 보수 또는 보수해 가는 사시봉제의 줄임 말로서 현 옷을 여러겹 쌓아서 입을 때 포와 포가 서로 움직이지 않게 압축해서 실로 누르는 것으로 바늘을 똑바로 상하로 찔러서 포를 누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법을 사시라고 하며, 사시된 것을 東北地方에서는 사시꼬(刺し子)라고 한다.<sup>58)</sup> 이 사시꼬는 지역적 개념의 명칭<sup>59)</sup>임을 알 수 있는데 사

57) 포름디자인 편집부. 포름, 8.9월호, p.24.

58) 徳永幾久. 刺し子の研究, 衣生活研究会. 平成 1年, p.80.

59) Michyo Morioka. Sasiko, Kogin and Hishizashi, Beyond the Tanabata Bridge. TRADITIONAL JAPANESE TEXTILES,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93, p.109.

시꼬에는 사시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사시꼬(刺し子), 고깅(コギン), 남부히사자시(南部陵刺し) 등은 각지의 사시명칭으로<sup>60)</sup> 東北地方의 누비를 사시꼬라하며 쓰가루(津輕)지방의 고깅과 남부히사자시가 이 사시꼬에 속한다. 따라서 일본의 누비에 대한 정의는 지역에 따라 지칭하는 명칭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일본의 누비는 지방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시하는 기법은 다르지만 바늘을 이용하여 직물을 바탕으로 누비는 것을 사시꼬로 통칭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전통 누비를 사시꼬라고 한다.

## 2. 일본누비의 역사

일본누비는 東北地方에서 피복재료의 재배 여건이 좋지 않아서 현옷을 이용한 직물의 보강 방법으로 사시기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東北地方의 기후가 매우 추웠기 때문에 직물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명을 여러겹 겹쳐서 직물을 누벼 직물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기법으로써 사시 기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민의 의생활에 따뜻한 무명이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일본의 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천정19년(1591년)에 나온다.

아오모리(青林)현의 여러지방에서 사시꼬, 고깅, 남부히사자시 등 누비는 천을 보강하고 오래가게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발달하였으나 藩의 의복령에 의한 규제와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다르고 각 직종에 대한 노동 내용이나 도구의 다름에 따라서 다양한 사시기법이 전개되었다.<sup>61)</sup>

津輕 고깅은 藩財政을 지키는 농민들이 목면사

용을 금지하여서 보온성이 부족한 일본제의 마포에, 사용이 허가된 목면사를 사시해서 보온성을 보완했다.

목면이 일반적으로 재배되게 된 것은 室町時代(1392~1573년)로 처음에는 의복의 재료가 아니고, 전쟁에 사용된 무구나 깃발, 화승총의 화승의 재료였다.

전국 전란이 끝나는 江戸막부가 성립되고, 강호, 대판을 중심으로 상품유통중에 막부나 明藩의 권장이 있고 피복재료로 해서 목면재배는 활발해 졌다.

東北地方은 목면을 재배하기에 기후가 적합하지 않아서 목면이 귀한 직물이 되었다. 남부의 히사자시는 藩의 規制는 없었지만 때마다 겹치는 기근으로 인하여 자가제의 면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농민들은 마포에 목면실을 누비는 방법으로 목면포의 대용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東北地方의 여건은 사시꼬 기법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누비옷으로는 正倉院의 사시노게사나 분소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시노라 함은 지금의 누비옷을 의미한다.<sup>62)</sup>

일본의 사시 기법은 飛鳥(AD552~645년)時代의 刺納, 刺繡, 纏縫에 다달아서 이미 이시기부터 사시기법이 행하여 졌던 것으로 旅日記<sup>63)</sup>에 기록되어 있다.

刺納, 刺繡, 纏縫은 지금의 스스리사시의 것으로 正倉院 御物인 刺納衣나 糞掃衣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sup>64)</sup>

正倉院 刺納衣는 성무천왕 77기에 해당하는 천평승보 8년(756년)에 光明皇后에 의해서 東大寺에 헌납된 동무천황의 유품으로 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七條刺納樹皮色 袈裟이며, 후세의 遠山袈裟의 원류

60) 玉田眞紀. 전계서, p.155.

61) 玉田眞紀. 東北の刺し子とアメリカン・キルトの比較-東北の民俗服飾との比較研究-, 日本家政學會 民俗服飾部會, 平成7年, p.63.

62) 조한열. 전계서 p.16.

63) 旅日記: 일본의 작가가 일본을 여행하면서 쓴 일기책.

64) 徳永幾久. 전계서 p.83.

라고 생각되어진다.<sup>65)</sup>

<圖 11>은 遠山袈裟로 室町末期의 것으로 중세의 袈裟이며, 石山寺에 소장되어 있다.



<圖 11> 遠山袈裟(室町末期) (출처: 刺し子の 研究, p.83)

### 3. 일본 누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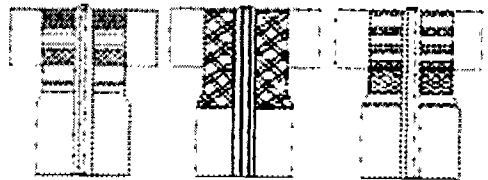
일본 누비인 사시꼬는 문양에 따라서 크게 매후사 기사시(目寒ぎ刺し)와 매오도시사시(目落し刺し)로 나눈다. 매후사기사시(目寒ぎ刺し)는 눈감추기 사시료 스스리사시(綴り刺し)와 고깅사시(コギン刺し) 남부 히시자시(南部陵刺し)가 이에 속한다. 매오도시사시(目落し刺し)는 봉제사시(縫い刺し)이다.

#### (1) 매후사기사시(目寒ぎ刺し)

고깅은 東北地方의 津輕 지역에서 개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암정색의 아사에 하얀 면사로 사시꼬로 장식된 것을 말한다. 고깅의 원래 의미는 허리까지 오는 짧은 노동복의 명칭인데 津輕의 농민들이 이 고깅에 사시를 한 것을 고깅사시라고 한다.

고깅이라고 하는 것은 津輕의 고깅을 지적하듯이 두터운 눈의 마직에 굵은 마사 또는 굵은 면사이고 경사와 위사 직물 구조에 따라서 사목을 근상하는

것에 의해서 수직 질서를 갖는 문양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고깅 사시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문양은 모두가 직선으로 되는 기하 문양이 되고, 곡선으로는 사시가 되지 않는다. 이 고깅은 30여종의 단순한 기초 문양과 이들의 복잡한 결합이나 조합에 의하여 다양한 종합문양이 구성된다. 그 문양도 동식물을 연상하는 것이나 사시베(刺し手)에 의해서 창작되어 명명된 것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하나고(花こ), 가자라스(カチャラス), 豆子, 鱗形, 고양이발 등으로 이들의 기초문양에는 조합의 중심이 되는 요소와 그것을 감싸는 윤곽이 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후자를 津輕 西部에서는 아가래고(あがれこ)라고 하며, 東部에서는 후쿠로(ふくろ)라고 부르고 있다. 고깅의 문양은 1, 3, 5의 홀수로 근상(筋上)해 가는 것이 보통이고 근상은 9위가 한도라고 한다. 석첩은 홀수와 짝수가 이리저리 혼합된 것이고, 남부능사시는 짝수의 근상을 주로 하는 것이다. 고깅은 서고깅과 동고깅, 3호 고깅의 3양식 <圖 12>으로 나누어 진다.



<圖 12> 서고깅과 동고깅, 3호 고깅의 3양식 (출처: 刺し子の 研究, p.85)

서고깅은 어깨의 바로 위와 옆의 사시꼬의 큰무늬가 있고, 그 밑의 가슴부분에 폭 5cm, 2단의 사절의 가는 무늬가 있고, 양측 두 겨드랑이의 사이에 변화있는 다양한 문양이 사시해 있는 것을 말하며, 서고깅의 문양이 섬세한 것은 이 지역(弘前시의 서측지역)의 직물 조직이 가는 실로 된 양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동 고깅은 큰자루인 무늬를 중심으로 해서 등 가운데에서 가슴에 걸쳐 한 면에 사시해 있는 것이나, 무

65) 奈刺國立博物館, 平成3年 正倉院展, 奈刺國立博物館, 平成3年, p.12.

늬의 유무는 정해져 있지 않다. 무늬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축제날 착용하는 것으로 문양이 복잡한 것이 많다. 弘前시의 동쪽에 많으므로 이 명칭을 사용했다. 삼호고강은 弘前の 북쪽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등의 고강에 비교해서 수는 적다. 삼호의 호칭은 전후에 굵은 3본식의 호를 배치한 양식에 의한 것으로 3본호는 여성용, 남성은 4~5본의 호이다. 대저 호 입은 사시를 하는 가운데 문양이 흐트러져 나오므로 그것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행하고 있다.<sup>66)</sup>

또한 히시자시는 남부지역에서 밝은 푸른색 아사 천에 하얀 면사로 누빈 것이다. 이것의 이름은 마름모(hishi)의 기초 모티브에서 유래된 것이다.<sup>67)</sup> 고강이나 히시자시는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문양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에서 만든 엄격하고 고도의 기술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밀하고 화려한 작업복에 표현되고 있다.<sup>68)</sup>

(2) 매오도시사시(目落し刺し), 봉제사시(縫い刺し)

매오도시사시는 현 것을 누이는 것부터 출발한 사시 기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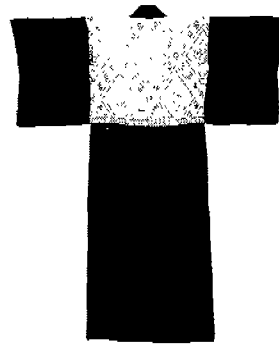
최초의 봉제는 포의 상 하를 한바늘씩 동촌법(同村法)침목(針目)으로 봉제하며, 다음에 2단목은 바늘땀의 상하를 역으로 해서 봉제해 물어버리는 것으로, 이 침목의 세밀한 것은 正倉院의 刺納에서 볼 수 있다. 明治時代に 들어 목면, 고수목면, 면사가 경관 방면에서 수입되어 감색마(紺麻), 감색목면에 흰 또는 검은 목면사로 사시하는 것이 농가의 처녀들에 유행하고 東北일대에 퍼졌었다.

4. 일본 누비복식의 종류

일본의 누비는 방한 및 직물보강을 위하여 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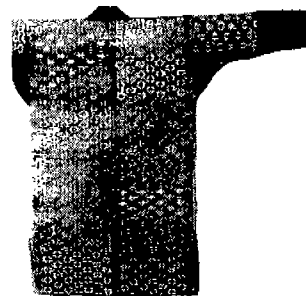
기 때문에 주로 목면을 소재로 한 복식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누비복식의 종류에는 일할 때 입는 労働服(농촌, 어촌, 산촌), 消防服, 裈纏, 히다다레, 足袋, 手袋, 보자기 등 실생활에서 일할 때 착용하는 복식에 많이 남아 있다.

<圖 13>은 여성용 労働服으로 고강사시로 만들었으며, 꽃과 나비, 별의 문양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圖 13> 고강사시 여성 労働服 (출처:TRADITIONAL JAPANESE TEXTILES, p.112)

<圖 14>은 사시기법중에서 남부능사시 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문양을 마름모꼴 모양으로 전체를 사시한 것을 볼 수 있다. 江戸末期와 明治 초기의 19세기의 복식으로 東北地方의 북서쪽지방에서 사용된 労働服이다.



<圖 14> 남부히시자시 着物(출처:菱刺しの技法, p.115)

66) 徳永幾久. 전게서, pp.85~86.

67) Iwao Nagasaki. The Tradition of Folk Textiles In Japan, Beyond the Tanabata Bridge TRADITIONAL JAPANESE TEXTILES, London: Thames & Hudson, 1993, p.20.

68) 田中忠三郎. 津輕こぎんと南部綾刺し、津輕こぎんと刺し子, INAX出版, 1998. p.61

<圖 15>은 사시꼬로 만든 火事袴纏 消防服으로 불을 끌때는 안을 뒤집어서 착용하고 평상시에는 겉으로 입는 것으로 겉과 안의 문양이 다르다.



<圖 15> 火事羽織

(출처: TRADITIONAL JAPANESE TEXTILES, p.122~123)

江戸時代에는 일본에서 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消防服의 수요가 유난이도 많았던 시기였다고 한다. 火事羽織과 火事袴纏의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불과 싸워야 하는 소방사들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불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강한 그림을 그려 넣는데 火事羽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동물은 호랑이로 이는 호랑이의 강한 힘으로 불과 싸워서 이기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의 飛鳥지방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입고 가는 것이 있다. 이 飛鳥에서 발달한 사시꼬(圖 16)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양이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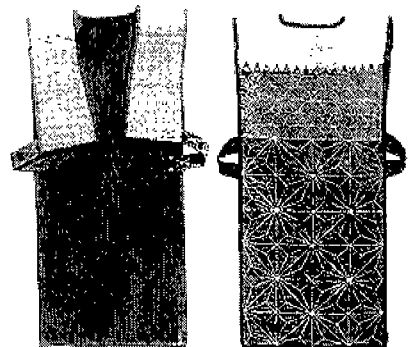


<圖 16> 飛鳥의 사시꼬(출처:刺し子の研究, p.198)

하고 있는데 문양에 의하여 그 옷을 바느질한 사람이 구별되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을 구별 할 수 있는 하나의 식별법이 되었다. 어부가 조난을 당해서 해수에 떠밀려 오면 그 가족들이 그 어부가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누구인지를 그 옷의 사시꼬로 구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飛鳥의 여인네들은 이러한 옷을 만들면서 한땀 한땀 정성을 들여서 남편이 출어시 무사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사시꼬 옷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지역에 사는 여자들은 사시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집에서 어머니가 딸에게로 전수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왔다. 이 飛鳥의 사시꼬는 이 지방의 민족복식으로 발달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독자적인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사시꼬의 문양이 다양하며, 앞치마, 소매없는 袴纏, 脚絆, 장갑등이 있는데 飛鳥 특유의 문양과 함께 이 지역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니스리(荷スリ:등짐용 조끼)는 등에 짐을 지는 일을 할 때 입는 옷으로 등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sup>69)</sup>

<圖 17>는 大正期 때에 제작된 니스리로 庄内地方의 사시꼬로 만들어진 것이다.<sup>70)</sup> 사시꼬의 문양 구성이 뛰어나다. 니스리는 앞에서 끈으로 묶어서 입는 것과 貫頭衣形の 것이 있으며, 길이도 앞길이는 가슴 위치로 짧고, 등길이는 길게 만든 것과 앞과 뒤의 길



<圖 17> 니스리(荷スリ)(출처:刺し子の研究, p.249)

69) 徳永幾久. 전계서, p.246.

70) 상계서, p.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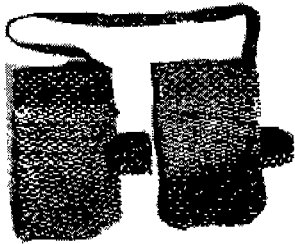
이가 같은 것도 있으며, 앞뒤의 길이가 같은 것은 대개 어깨보호용 니스리이다. 주로 농촌이나 산촌에서 많이 착용하는 노동복의 일종이다. 庄内지방에서의 니스리는 특이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다.

마에다레(前だれ) 또는 마에카케(前掛け)는 앞치마이며, 東北地方에서 주로 착용했던 노동용 의복이다. 着物 앞부분의 오염을 방지하고 방한 등의 목적으로 작업시 착용하는 의복이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商人의 마에다레는 본래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선전, 간판대용 및 수건으로도 사용되었다.<sup>71)</sup>

어린이 옷에는 건강을 기원하는 염원을 사시기법에 담아서 옷에 장식하여 어린이에게 입게 했다. 어린이들은 잘 넘어지기 때문에 직물이 쉽게 떨어지는데 직물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시기법이 사용되었다. 어린이 용품중에는 오므츠(おむつ:기저귀)가 있는데 이는 직물이 사시에 의하여 단단하게 형태를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일본버선인 다비(足袋: 버선)는 엄지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가 벌려진 형태로 바닥직물이 빨리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물의 보강을 위하여 사시한 것이다.

장갑인 데부꾸로(手袋: てぶくろ)·뿔고우(手甲: てっこう)는 일본복식에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이다. 手袋(圖 18)는 손가락이 들어갈도록 만든 장갑을 말하며, 手甲은 손가락이 밖으로 나오도록 만든



<圖 18> 手袋 (출처:布のちから布のわさ, p.63)

손등만 덮는 장갑이다. 手甲은 노동복 부속품의 일종으로 卍型과 筒型이 있다.<sup>72)</sup>

가항(脚絆: きゃはん)은 바지 아래를 묶어 주는 것으로 특히 농사나 어업을 하는 勞動服에는 이 脚絆이 많이 사용되는데 사시꼬 문양으로 누벼서 실용적인 면과 아울러 아름답게 장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脚絆의 종류에는 2가지인데 하나는 원통형이고, 다른 하나는 끈으로 묶어서 다리에 착용하는 것이 있다.

후로시끼(ふろしき:보자기) (圖 19)는 네 귀퉁이를 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귀퉁이는 쉽게 헤어지는 곳으로 문양을 넣어 누비면 보다 더 실용적인 보자기가 된다. 또한 보자기를 묶었을 때 문양에 의해서 더욱 아름답게 된다.



<圖 19> 商家의 보자기(출처:布のちから布のわさ, p.36)

### 5. 일본 누비에 담긴 풍습

일본누비인 사시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구성이나 보온성등 기능적인 면만으로 하지 않는다. 일본 누비에는 어린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여 씨족의 신에게 간다. 이때 신생아에게 입히는 기모노(着物)는 이음선 없이 한개로 만들어진 것으로 등에서 요물이 들어 간다고 해서 부적으로 누비문양이나 도안을 부착해서 배단속을 하였다.

71) 전개서, p.296.

72) 大沼 淳, 전개서, p.544.

어린이 옷에 담긴 풍습으로 일본에는 백덕기모노(百徳着物)라는 것이 있는데 百徳着物은 신체가 약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원하며, 친척이나 주위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집에서 형점조각을 얻어 모아서 만들어 진 것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꿰매어 잇는 것으로 천매의(千枚衣) 또는 하기와와세 모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sup>73)</sup>

일본의 보로사시(襪褌刺し: 누더기누비), 쓰꾸로이사시(繕いさし: 수선누비)는 실용성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꿰맨 의복으로 그 의복을 착용시켜 인간의 환생을 기원하였으며, 또는 악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부적문을 꿰매어 신성한 주력을 갖는 의복으로써 정신적인 힘을 부가하는 등, 생과 사를 의식하면서 바느질한 의류로 볼 수 있다.<sup>74)</sup> 2차대전 중에는 부인들이 군인으로 출전하는 아들에게 탄환을 막아주고, 몸을 보호해 주는 부적의 역할로 이 사시꼬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시는 정신적인 역할로써 수호신으로, 또 액을 떨쳐버리는 부적으로, 부귀와 장수를 기원하는 등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75)</sup>

## V. 한국과 일본 누비 비교

누비의 기법에서 한국의 누비는 오랜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완만한 장식과 함께 심미적 경향의 실용적인 의미를 나타내면서 장식적이고 은근하게 발전했다. 한국 누비의 특징은 침선 중에서 기술적인 면과 조형적인 면에서 이음선을 노출시킨 바느질이 꼼꼼하다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sup>76)</sup> 한국의 누비는 두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어서 줄이 지게 누빈 것이 대부분으로 두겹사이

에 솜을 넣거나 창호지를 넣은 경우, 아무것도 넣지 않고 두겹의 형점만으로 누빈 것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솜을 넣어서 누비는 방법이다. 걸감과 안감이 같은 소재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신체에 직접 닿는 것은 겹은 비단으로 안은 목면으로 만들어 인체의 피부 위생을 고려한 것도 보인다. 누비의 문양과 기법의 변화는 비교적 단순하여, 누비의 간격을 넓게 하거나 좁게 하는 것으로 그 모양의 변화를 주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 주로 본견으로 만든 누비 유물이 많은데 이는 출토 복식의 특성상 상류층 사람들의 부장품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의 누비는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 형태의 누비가 발달하였으며, 일본의 누비를 대표하는 것은 東北地方의 사시꼬로 그 명칭 또한 전통적인 개념의 누비를 의미하는 총칭으로 사용된다. 일본의 누비에는 단순히 직물의 보강을 위하여 직물을 누비는 것과 수예에 가까운 장식적인 누비도 있다. 한국은 누비에 사용된 직물이 견직물과 면직물이 주류를 이루며, 일본의 누비에는 면직물과 마직물에 사용된 누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누비의 용도중 한국누비의 비중은 주로 방한용 의류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였고, 솜을 두어 찬 기온을 차단하고 두꺼운 공기층을 만들어 보온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봉제 기법이였다. 일본누비는 보온을 위한 방법으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은 다른 나라로 부터 직물의 유입이 어려웠던 사회적 조건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물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직물을 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비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점차 장식성을 가미할 수예에 가까운 기법으로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

누비에 관한 풍습은 한국과 일본의 누비에 관한 풍습에 대해서 어린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정성

73) 玉田眞紀. 전계서, p.156.

74) 조한열. 전계서, p.15.

75) 徳永幾久. 전계서, p.85.

76) 金美仙. 웰빙 아트웨어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p.11.

껏 누비한 것을 볼 수 있다. 복식에 누비의 문양을 통하여 기복적인 의미를 부여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의 백일복을 누벼서 어린이의 장수를 실의 길이만큼 늘어나기를 기원하였고, 일본에서는 건강한 어린이 옷 조각을 얻어다 만든 옷을 입혀서 허약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소방관들이 입는 소방복에 험이센 동물이나 뜻이 강한 글씨를 옷에 누비문양으로 넣어서 화마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림이 보이는 쪽으로 입다가 불을 진화시키러 갈 때에는 뒤집어 입고 가는 풍습이 있다. 飛鳥지방의 어부복은 출어 할 때 부인이 풍어를 기원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막기 위한 기원을 문양으로 넣어서 입는 풍습이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한국의 누비는 출토 복식에 의한 자료가 朝鮮時代의 이후 것이 대부분이며, 일본의 누비는 江戸時代에서 明治時代의 것이 가장 많으며, 이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누비 복식이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시기 유물에 대한 문헌적인 자료가 가장 많다.

복식의 형태는 자연환경, 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연환경인 기후, 풍토의 조건은 생산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의복재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또한 복식의 형태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의복에 있어서 누비복식에 의한 두나라의 복식문화는 자연적인 조건과 풍토에 의하여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국과 일본의 누비는 승려복인 衲衣에 기원을 두고 발생하여 자연적 조건인 기후에 적응하기 위하여 방한용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본누비는 지역적인 개념이지만 東北地方을 중심으로 한 사시꼬라는 전통의 누비형태가 발달하였다. 많은 의복재료가 없었고 기후가 피복재료를 재배하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

면서 헌옷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누비가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누비의 용도는 한국의 누비복식은 주로 방한용으로 발달한 반면, 일본의 누비복식은 방한과 함께 직물보강을 위한 보강용으로 누비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누비는 주로 면직물과 견직물을 이용하여 두겹의 직물을 수직선으로 누웠으며, 누비종류에는 불록누비, 오목누비, 납작누비와 누비간격에 따라 세누비, 중누비, 드문누비로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본누비는 면직물과 마직물을 이용하여 자수에 가까운 누비기법인 사시꼬, 고깁, 남부능사시가 발달하였다.

누비에 관한 풍습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들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염원하기 위한 신념을 복식에 담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술을 통한 기복적인 의미를 담아 누비복식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누비는 왕족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하였으며, 일본의 누비는 주로 노동복에서 많이 사용하여 주로 낮은 계층에서 사용되었다.

한국의 전통 누비가 충무지방(통영누비)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은 충무지방이 바다 바람이 세고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일본의 飛鳥지방에서의 누비복식이 발달된 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대한 민속학적인 연구를 실시하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한국서>

-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도록, 고려서적(주), 1996.
- 高福男, 韓國傳統復飾史研究, 一潮閣, 1986.
- 국립민속박물관, 광복 50주년기념 한국복식 2천년, 신유문화사, 1995.
- 國立民俗博物館, 문익점과 무명문화, 新裕文化社, 1991.

- 國立中央博物館, 韓國의 美 - 衣裳·裝身具·裯, 通川文化社, 1988.
  - 金文子, 韓國服飾文化的 源流, 民族文化社, 1994.
  - 金英淑, 朝鮮朝末期王室服飾,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7.
  - \_\_\_\_\_, 韓國服飾史辭典, (株)民文庫, 1988.
  - \_\_\_\_\_, 韓國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 김중권 역, 雅言覺非, 卷之2.
  - 丹野郁, 原田二郎編著, 李熙賢譯, 西洋服飾史, 中央技能啓發研究社, 1982.
  - 東亞出版社編輯部,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7卷, 東亞出版社, 1984.
  -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韓國의 甲冑, 세신문화사, 1987.
  -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朝鮮時代 宮中服飾, 1981.
  - 백영자, 韓國의 복식, 경춘사, 1993.
  - 石宙善, 冠帽와 首飾,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93.
  - \_\_\_\_\_, 續 韓國服飾史,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82.
  - \_\_\_\_\_, 衣(民俗學 資料 第3輯),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96.
  - 신영선, 문화인류학에서 찾아본 服飾의 정신문화, 敎文社, 1998.
  - 李熙昇, 民衆國語辭典, 民衆書林, 1987.
  - 劉頌玉, 韓國服飾史, 修學社, 1998.
  - 梨花女子大學敎博物館, 服飾 -家政科學大學 蒐集 服飾資料를 中心으로-, 梨花女子大學敎 博物館 特別展 圖錄, 第23卷, 1995.
  - 장인우,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출토 복식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5.
  - 조한열, 퀴트이론과 실제, 學文社, 1996.
  - (주)세계일보, 아름다운 한복, 1993.
  -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전통 손누비 옷 초대전 도록, 1994.
  -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 현암사, 1997.
  - 金美仙, 퀴팅 아트웨어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5.
  - 김윤주, 전통누비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金成俊, 文益漸과 木棉외 傳播의 歷史의 背景, 문익점과 무명문화, 국립 민속박물관, 1991.
  -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中心으로-, 世宗 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92.
  - \_\_\_\_\_, 누비 小考, 服飾, 第十四號, 韓國服飾學會, 1990.
  - 裴尙慶, 東來鄭氏 興谷公墓出土遺衣 保存處理報告書-鄭夫人 驪興閔氏(東來鄭廣敬의 配位) 遺衣에 관한 保存處理 및 服飾史的 考察-, 京畿道博物館, 1992.
  - 鮮于銀京, 朝鮮時代 縷緋服飾에 關한 研究-出土服飾을 中心으로, 明知大學交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4.
  - 吳根美, 現代 퀴트(Quilt)에 關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5.
  - 유희경, 服飾 -家政科學大學 蒐集 服飾資料를 中心으로-,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 23호,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1995.
  - 李和暎, 일본직물에 關한 고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2.
  - 조선희, 東北아시아 신 文化에 關한 研究-靴, 鞋, 履를 中心으로-, 誠信 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97.
  - 崔仁建, 손누비에 關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8.
  -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외국서>
- 高橋春子·後藤信子編著, 衣の民俗叢書, 明玄書

- 房, 昭和53年.
- ・ 国立歴史民俗博物館, 布のちから布のわざ, 大塚工藝社, 1998.
  - ・ 奈劇国立博物館, 平成3年 正倉院展, 奈劇国立博物館, 平成3年.
  - ・ 丹野郁. 原田二郎編著, カラーズライド西洋服飾史, 衣生活研究会, 昭和56年.
  - ・ 大沼 淳. 服飾辞典, 文化出版局, 昭和57年.
  - ・ 徳永幾久. 刺し子の研究, 衣生活研究会, 平成 1年.
  - ・ 東京国立博物館. シルクロードの遺案-古代・中世の東西文化交流, 東京国立博物館, 1985.
  - ・ 服装文化協會編, 服装大百科 事典, 上巻, 東京:文化出版局, 昭化61年.
  - ・ 矢萩昭二. 万祝の發生と木綿栽培, 民俗服飾研究論集, 第8集, 日本家政學會 民俗服飾部會, 平成6年.
  - ・ アメリカン・アンティークキルトコレクション編集委員会, 公立女子大學所藏アメリカン・アンティークキルトコレクション, 日本ヴォーグ社, 1992.
  - ・ 玉田眞紀. 東北の刺し子とアメリカン・キルテの比較-東北の民俗服飾との比較研究, 民俗服飾 研究論集 第 8集, 日本家政學會 民俗服飾部會, 平成 6年.
  - ・ 玉田眞紀. キルティングとパッチワークの文化, 公立女子大學所藏アメリカン・アンティークキルトコレクション, 日本ヴォーグ社, 1992.
  - ・ 長崎 巖. 在外日本染織集成, 東京: 小學館, 1995.
  - ・ 井之本泰. 布おさず”, 布のちから 布のわざ, 国立歴史民俗博物館, 大塚工藝社, 1998.
  - ・ 諸橋轍. 大漢和辞典, 大修館書店:東京, 昭和60年.
  - ・ 朝岡廉二. 布とその技をめぐる過去と現在, 布のちから 布のわざ, 大塚 工藝社, 国立歴史 民俗博物館, 1998.
  - ・ 鷺沢玲子. トラプントキルト, 日本ヴォーグ社, 1996.
  - ・ 八田愛子・鈴木堯子. 菱刺しの技法, 東京:美術出版社, 1992.
  - ・ 田中忠三郎. 津輕こぎんと南部陵刺し、津輕こぎんと刺し子, INAX出版, 1998.
  - ・ A. Colby. Quilting, New York: Scribner, 1971.
  - ・ Cynthia Shaver. Sashiko:A Stitchery of Japan, Beyond the Tanabata Bridge TRADITIONAL JAPANESE TEXTILES, London: Thames & Hudson, 1993.
  - ・ Iwao Nagasaki. The Tradition Of Folk Textiles In Japan, Beyond the Tanabata Bridge TRADITIONAL JAPANESE TEXTILES, London: Thames & Hudson, 1993.
  - ・ Jonathan Holstein. The Pieced Quilt, New york : Graphic Society Book,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 ・ Kathryn Berenson. Quilts of Provence The Art and Craft of French Quiltmaking, London: Thames and Hudson, 1996.
  - ・ Michyo Morioka. Sasiko, Kogin and Hishizashi, Beyond the Tanabata Bridge TRADITIONAL JAPANESE TEXTILES, London: Thames and Hudson, 1993.
  - ・ The Association with the Museum of American Folk Art, The Quilt Encyclopedia Illustrated, New York: Times Mirror Company, 1991.
  - ・ William Jay Rathbun. Beyond the Tanabata Bridge TRADITIONAL JAPANESE TEXTILES, London: Thames and Hudson, 1993.